

2025년 11월 시청자의견 반영실적

방송사명 : 여수문화방송(주)

1. 의견 제시 및 조치현황

구 분	의견제시	조치현황	처리비율
11월	10	10	100%

2. 시청자 의견 제시에 대한 조치내용

연번	접수 일자	의견제시 내용	접수경로	해당부서	조치내용
1	11/4	유튜브 방송채널추가 입니다 비밀글	홈페이지	콘텐츠센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수MBC 유튜브 채널은 현재 방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News/Prime/Music+를 운영 중에 있으며 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 여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시청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추후 채널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1/06	순천시의 두루미 서식지 확대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수mbc 뉴스 담당자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 보도를 보니 순천시가 또 전봇대를 뽑고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터무니 없는 순천시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의 의학자들은 수 십년 전에 인간은 조류바이러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조류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했습	홈페이지	보도센터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순천만에 해마다 월동하는 천연기념물 흑두루미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통해 친환경 생태 도시로 거듭나려는 순천시의 노력을 뉴스에 담은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의견처럼 무분별한 흑두루미의 월동도 조류바이러스 전염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 소중히 받아서 이 부분도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니다.</p> <p>인간과 조류는 진화의 과정이 너무도 달라서 조류에게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견해를 개진해왔습니다.</p> <p>그리고 그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올해 초 이미 미국 방역당국은 조류바이러스의 인수간 전파사례를 확인하였고 대규모 팬데믹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해서 흑두루미를 불러들인 결과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한 겨울철에 흑두루미가 고밀도로 서식하여 조류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를 높여 온 것이 저간의 사정입니다.</p> <p>그런데 이것에도 모자라서 또 서식지 확대에 나서서 예산을 낭비하고 더욱이 시민의 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하고 있습니다.</p> <p>순천시의 반자연적인 순천만 철새 개체수 늘리기 행정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뉴스를 기획해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또한 조류바이러스에 의한 인간의 감염위험에 대해서도 심층보도를 해주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p>감사합니다</p>
3	11/14	<p>계정 탈퇴방법</p> <p>비밀글</p>	홈페이지	경영센터	<p>안녕하세요</p> <p>여수MBC입니다.</p> <p>여수MBC홈페이지는 회원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p> <p>회원탈퇴를 원하시면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로그인 후 연결된 서비스관리에서 서비스 동의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p> <p>감사합니다.</p>
4	11/17	<p>여자만 국가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한 지역의 핵폐기장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p> <p>우리지역이 산업화되지 못한 주요원인 중에 하나가 일단의 극단적 환경보존론자들의 출현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p> <p>지역을 개발해서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도 될까 말</p>	홈페이지	보도센터	<p>선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p> <p>여자만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취재해 보고</p> <p>여러 각도에서 심층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다시한번 저희 뉴스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p>

	<p>까 하는 판국에 환경보존을 내세워서 그것을 행정당국이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패배주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p> <p>올해는 순천시장님의 고향이기도 한 장흥군 일각에서 장흥군으로의 고준위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간에 불화가 심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p> <p>재작년에는 또 어떠했습니까. 고흥군 일각에서 광주군공항을 유치하려는 공개적 시도가 있어 주민들 간, 주민과 군청당국 간의 상당기간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p> <p>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역이 개발되어서 직업이 창출되어야 고향에 거주가 가능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개발은 커녕 오히려 보존 운운하면서 지역민에 필요한 정책을 외면한 채 개발을 봉쇄하니 지역민이 희망을 잃고서 보상금이라도 받아서 타관으로 떠나려 하기 때문입니다.</p> <p>지금처럼 환경보존 운운하면서 개발을 저해하는 행정행위를 한다면 우리지역은 핵폐기장이나 그에 준하는 쓰레기장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p> <p>여자만의 매립개발은 100 여 년 전 일본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이러한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까지 존치되었습니다.</p> <p>여자만은 평균 깊이 10m의 육성층(陸性層)으로 매립개발이 매우 용이한 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매립개발하여 세계 150국 거리를 조성할 것과 동아시아 UN본부를 유치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투자유치를 하면 무난하게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p>여자만에 500 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초현대식 도시를 건설하면 30년 이내에 인근 여수반도, 고흥반도, 순천시, 보성군은 1,000만명이 거주하는 메트로폴리탄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p> <p>100 여 년 전에 일본은 전남동부지역에 메트로폴리탄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는데, 건설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동부지역민이 그러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p> <p>도시공학자들은 이미 수 십 년 전에 미래에는 세계의 주요도시인 몇 개의 메트로폴리탄 도시만 살아 남고 중소도시는 소멸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p>			
--	--	--	--	--

		<p>우리지역의 역사가 면연히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스스로가 메트로폴리탄 도시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p> <p>순천시에 의해서 추진된 여자만 국가생태공원 조성 계획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p> <p>그리고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즉시 여자만 매립개발과 국제도시 건설에 대해서 협의하여 이를 이재명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p> <p>인류문명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세계 고인들의 1/3이 있는 전남의 고인돌입니다, 세계최대의 상고시대 유적지인 전남이 지금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p> <p>상고시대 고대시대 역대제왕들의 고향으로 천하의 중심을 자처했던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상실감으로 타관으로 떠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p> <p>우리나라 전통사학계에는 인류의 문명이 한국에서 생겨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온다는 이른바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사상이 전합니다. 예견하건데, 인류문명이 처음 생겨난 천하제일성시(天下第一城市)인 여수, 순천, 고흥이 감싸고 있는 여자만은 인류문명이 원시반본할 터전임을 예견합니다.</p> <p>뉴스보도의 형평성을 제고하셔서 여자만의 개발에 대한 의견도 적극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5	11/21	<p>"순천시 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소송 " 판결에 대해서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p> <p>순천시 자원화시설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에 관한 여수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고서 한 자 적습니다.</p> <p>노관규 순천시장은 그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환경타령"을 하고 철새보호를 위해서 최근에도 순천만 인근의 전봇대를 뽑는 행정행위를 했습니다.</p> <p>그런데 오존경보 발령 횟수 1위 지역인 순천시 도심에 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하여 수 년간 순천시민들과 극한의 대립을 해온 것이 저간</p>	홈페이지	보도센터	<p>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p> <p>자원화시설에 대한 다양한 생각 뉴스에 담아 잘 보도하겠습니다</p>

	<p>의 사정입니다.</p> <p>노관규 시장의 자원화시설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이 시설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자원화시설의 쓰레기 처리방법의 핵심은 "쓰레기 소각"입니다. 물질을 소각하면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기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과학입니다.</p> <p>특히 오늘날 "이산화탄소"에 대한 '독성'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장기적인 과잉 이산화탄소 환경에 노출되면 만성적 '두통'과 '졸음'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진단입니다.</p> <p>다수의 순천시민들은 공단이 있는 여수시, 광양시에 비해서 순천시는 대기의 질이 훨씬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오존주의보 횡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오존주의보가 많이 내리는 곳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인데 순천시의 오존주의보 발령 횡수는 여수시, 광양시에 비해서 1~2회 정도 낮은 수치로 사실상 동일수준의 횡수입니다. - 연간 12회 수준으로 기억 - 순천시는 서울시 면적의 1.5 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거주 밀집지역에 이산화탄소 등의 유해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환경보존론자"를 자처하는 순천시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에 분노를 넘어서 '일말의 의구심이 든다'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이 갖는 생각입니다.</p> <p>대한민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 헌법과 다수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계획법과 그 하위법률에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구분하여 국토이용에 대해서 적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의 보호를 법제화 하고 있습니다.</p> <p>시민의 주거지에 '쓰레기 집하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겸하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라는 것을 합리적 논거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 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시 면적의 1.5배로 30만 정도가 거주하는 순</p>			
--	--	--	--	--

	<p>천사에서 시민이 밀집한 도심 한 가운데 쓰레기 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토지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지극히 비합리적 행정행위입니다.</p> <p>순천시 자원화시설에 관한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의 헌법규정을 들어서 위헌적 판결임을 적시합니다.</p> <p>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p> <p>헌법 제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p> <p>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순천시 자원화시설은 경기도 남양주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아는데 도심 자원화시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실태를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입지의 타당성을 말하기 바랍니다.</p> <p>순천시장의 일종의 시민 적대적 행정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자원화시설" 건립계획을 즉시 백지화하고, 특히 검사 출신으로서 법적 감정을 제고하여 민주적 행정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지방자체지체의 숭고한 이념에 대해서 반성적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p> <p>'자원화시설' 관련 지역에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서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촉구합니다.</p> <p>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여수mbc의 보도에서도 지역의 이슈에 대한 단순 '팩트'를 전달하는 보도 행태를 지양하고 사안에 대해서 이성애 기반한 주관적 견해의 표시를 하는 뉴스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p> <p>시민들이 그토록 '절규'하는 모습을 도외시하고 3D시설인 '쓰레기처리시설'을 시민 주거공간에 건립하겠다고 대립해온 노관규 순천시장이야말로 순천시에서 시급히 뽑아내야 할 "순천시 행정현장의 전봇대"가 아닌가 하는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p>		
--	--	--	--

		<p>감사합니다.</p> <p>공공예산으로 특정 개인만을 위한 주차봉 설치... 정당한 행정인가?</p> <p>공공예산으로 특정 개인만을 위한 조치? 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11월 25일 오늘 시청이 공공예산을 사용하여 특정 개인의 민원에 따라 그 개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봉(차 량 진입 방지용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양카 고정 방식으로 울타리처럼 둘러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주차봉 설치는 도로라는 공공장소를 특정 개인만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성한 것 으로 보이며, 이는 공공예산의 형평성과 공정성 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구역은 특정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에도 개인 민원 하나만을 근거로 다른 모든 주민의 이 용권이 배제되는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공성을 상실한 행정행위이며, 공 공자원의 사적 사용을 묵인하는 중대한 문제라 판단됩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의 다수 주민들은 이 설치로 인 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해당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광범위하 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은 사전 공지, 의견수렴, 협의절차 없이 일 방적으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공공 도로나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 치는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임에도 이번 조치는 이를 명백히 저버린 것으로 판단됩 니다. 하여, 여수시청 관계자분께 여쭙보고 싶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주차봉 설치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집행 근거,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공개 2. 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던 이유 3. 공공성·형평성이 결여된 본 조치에 대한 즉각 적인 재검토 4.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6	11/25		홈페이지	보도센터	<p>소중한 제보 감사합니다 공공장소인 도로에 주차봉 설치를 통한 운전자들의 불편 초래 사실 담당 기사를 통해 취재해 보도록 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7	11/26	<p>옛날 방송 자료 비밀글</p>	홈페이지	경영센터	<p>안녕하세요 요청하신 방송자료를 찾아보니까 저 용량 파일은 존재합니다. 너무 저용량이라 화질이 좋지 않지 만 네이버 메일로 보내 드렸습니다</p>

					감사합니다
8	11/27	<p>초단파 98.3MHz, 출력 2kW로 방송되는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p> <p>여수MBC FM4U 방송개시멘트를 확인해보니까 3번째 방송개시멘트에 뭔가 초단파 98.3MHz, 출력 2kW로 방송되는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다가 갑자기 계속해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p> <p>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5년 10월 1일 수요일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출범 했습니다.</p> <p>그러면 여수MBC FM4U 방송개시멘트를 확인해보셔서 3번째 방송개시멘트를 초단파 98.3MHz, 출력 2kW로 방송되는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를 수정 교체 하고자 합니다.</p>	홈페이지	콘텐츠센터	<p>안녕하세요</p> <p>현재 수정중에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수정된 방송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p>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p> <p>감사합니다</p>
9	11/27	<p>초단파 100.3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p> <p>여수MBC 표준FM 방송개시멘트를 확인해보니까 3번째 방송개시멘트에 뭔가 초단파 100.3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다가 갑자기 계속해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p> <p>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5년 10월 1일 수요일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출범 했습니다.</p> <p>그러면 여수MBC 표준FM 방송개시멘트를 확인해보셔서 3번째 방송개시멘트를 초단파 100.3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를 수정 교체 하고자 합니다.</p>	홈페이지	콘텐츠센터	<p>안녕하세요</p> <p>현재 수정중에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수정된 방송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p> <p>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p> <p>감사합니다</p>
10	11/28	<p>옛날 방송 자료</p> <p>비밀글</p>	홈페이지	경영센터	<p>안녕하세요</p> <p>요청하신 자료 찾아보니까 저화질 자료는 보관되어 있습니다.</p> <p>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